

제주국제관악제 만족도 조사 및 자체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제안 연구

양정철, 이관홍,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for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through the survey and evaluation of satisfaction

Jeong-Cheol Yang, Gwan-Hong Lee, Kyung-Soo Hwang*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의 시민들이 만족도를 알아보고 이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음악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하나의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다. 관악인의 축제로 시작하여 음악이란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 제주 국제관악의 만족도와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시민들의 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75.8%(만족+매우만족)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주국제관악제의 프로그램 수준 및 행사공간의 적절성의 평균은 각각 86.9%(만족+매우만족), 85.2%(만족+매우만족)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단점으로 교통의 편리성의 증대되어 된다는 의견이 높다. 또한 인터뷰 조사에서는 장소와 나이를 불문하고 기획한 우리 동네 관악제와 밖거리 음악회는 선율로 관객과 소통하는 시민 모두의 축제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였다. 제주국제관악제가 시민의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통의 편리성 증대와 사무국 전담인력 확보, 제주국제관악제 홈페이지 활성화, 각 지역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 각 공연장 및 경연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태프 및 자원봉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improve the satisfaction of people attending the Jeju International Wind Festival, the representative festival in Jeju.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is a festival in which peopl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music.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user satisfaction of the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and to make improvement plans. The average satisfaction rate for the event was 75.8% (Satisfaction + Great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average program level of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and average appropriateness of the event space were 86.9% (Satisfaction + Great satisfaction) and 85.2% (Satisfaction + Great satisfaction), respectively. The disadvantage is that public transportation that should be improved. According to results of the survey through the interview, the town wind ensemble festival and outside concert enabled performers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through melody. In order for the Jeju International Orchestra Festival to take root as a festival for citizen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secure personnel in charge of the secretariat, revitalize the Jeju International Orchestra Festival website, and promote volunteer activities. We present future research direction.

Keywords :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satisfaction, music language, communication, citizen festival

*본 연구는 2017년 제주국제관악제 만족도 조사 및 경제파급효과 결과보고서 및 2017년 제주국제관악제 자체평가회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Corresponding Author : Kyung-Soo Hwang(Jeju National Univ.)

Tel: +82-64-754-2971 email: kshwang@jejunu.ac.kr

Received April 16, 2018

Revised (1st May 15, 2018, 2nd June 5, 2018)

Accepted July 6, 2018

Published July 31, 2018

1. 서론

본 연구는 제주국제관악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관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데 있다.

세계적인 관광지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이를 홍보하고 있다. 축제에 있어 방문자는 축제를 즐기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과 다시 방문하는 잠재 방문객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1]. 최근 지방정부에서는 한류를 표방한 대중음악, 록, 힙합, 인디밴드 등 다양한 음악을 주제로 지역축제와 연결하여 장소마케팅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음악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음악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과 소통하는 음악언어라는 장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음악의 소통은 관객과 연주자의 소통을 통해, 세상에 다양한 소리를 음악이라는 언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음악축제이다. 우리나라의 음악축제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의 축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음악축제는 대관령국제음악제, 전주세계소리축제, 통영국제음악제, 제주국제관악제 등이 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1995년 ‘섬, 그 바람이 울림’, 이라는 주제로[2] 제주도 관악인들이 관악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 라는 취지로 시작되어 2017년 22회에 이르렀다[3]. 제주국제관악제는 2000년부터 제주국제관악콩쿠르를 통해 국제적인 대회로 성장하였다. 2009년에는 우리 동네음악제라는 공연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악인들이 함께하는 축제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2017년에는 밖거리 음악회라는 공연을 통해 도민과 어린이 그리고 관광객이 함께하는 축제로 음악이란 언어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 또한 관악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벗어던지고 시민들의 일상에서, 때론 관광객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음악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이를 높이 평가하여 제주국제관악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17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에서 A등급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

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연장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공연장과 공연팀 숙소를 연결할 수 있는 교통편도 포함이 된다. 세 번째는 공연을 기획하고 홍보할 상근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국제관악제는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시기적으로도 본 연구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이론적 고찰

2.1 지역축제의 개념과 평가방법

2.1.1 지역축제의 개념

지역축제는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자원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문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체험과정의 총체로 정리할 수 있다[4]. 지역축제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전국 지방정부에서 지역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는 지방화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관광 지향적 축제로 지향이 되면서 지역의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5]. 현재 각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는 지역에 고유한 문화·역사자원, 산업 경제적 가치와 의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 문화 교육과 지역 경제의 잠재능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6].

2.1.1 지역축제 평가방법

정부차원에서 지역축제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1983년부터이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문화관광축제의 지정이 확대되면서, 축제의 효율적 관리 과제가 부과되면서 축제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개별평가는 방문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공통평가 항목은 방문객 1인당 지출액과 접근성, 홍보·안내, 행사내용, 먹거리, 축제상품, 편의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다. 참관평가는 홍보 안내, 행사 진행전반 축제프로그램, 쇼펄 및 음식, 지역주민참여,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숙박 및 관광 등 전반적인 항목을 측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4].

지역단위 평가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에는 2006년 5월 서울시 문화예술축제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공무원, 예술단체 관계자, 민간전문가로 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를 심의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2005년 기존의 서면평가에서 현장평가를 추가시켜 축제 기획분야, 행사장 시설 및 운영분야, 관광 상품화 전략 등을 평가하고 있다[4].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문화예술진흥조례를 2015년5월 개정하여 지역문화축제 및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 지원 사업을 통해 음악축제를 지원하고 있다.

2.2 제주 관악 음악의 역사

2.2.1 제주관악 음악의 태동

제주 관악이 역사는 일제 강점기하에 군국주의 교육의 용이성을 위해 시작되었다. 1930년 중반이후 1945년 8·15 해방 이전까지 군국주의 교육과 군사훈련, 집합신호, 행진 등을 교육하기 위해서 관악대가 활동하였다. 이 중에서도 1942년 설립된 에월보통학교 관악대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7]. 일제 강점기하에서 육지에서 내려온 교사들과 제주출신 교사들이 합심하여 보통학교를 중심으로 관악대를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일제 강점기 하에 관악대가 있었던 학교를 살펴보면 에월보통학교, 성산포서보통학교, 한림서보통학교, 신장보통학교, 하도보통학교, 외도보통학교로 총 6개소

의 학교가 있었다[8]. 1940년대부터는 제주출신의 교사를 중심으로 각 학교에서 편성되어 운영하였던 것이 제주도 관악이 역사이다. 일제강점기에 제주도에 관악대가 있던 학교는 다음과 <Table 1>와 같다

이후 경성교향악단에서 활동하다 제주에 정착한 김국배가 제주중학교에서 선생님이로 일하면서 15인 규모의 관악대가 창설하게 된다[9]. 직장인 관악대는 동척회사(제주주정회사의 전신)1947년 말 처음으로 소규모 직장 관악대를 창설하였다. 1949년에는 제주농업중학교 관악대가 창설되어 4·3으로 힘들어하는 도민들에게 많은 위안을 주게 된다[7]. 6.25 동란 당시에는 이성삼, 계정식, 박재훈 등의 많은 음악인들이 제주에 피난을 오게 된다. 이를 통하여 제주음악인들과 순수 예술음악에 대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제주도 음악과 관악이 역사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다.

그리고 1952년 UN 대민 지원사령부 소속이 길버트 소령이 제주도에 입도하면서 가지고 온 관악기를 매주 오현고등학교, 한국보육원, 제주중학교 등을 방문하여 악기 및 악보를 기증하고 직접 가르쳐 주었다. 또한 학생들의 악기가 고장 나면 그것을 모아 고쳐주면서 6.25 동란 으로 힘들어 하던 제주도민들의 삶에 관악을 통해 희망을 주기 시작하였다[10].

2.2.2 제주관악 음악의 성장기

우리나라 관악의 발전을 이끌 한국관악연맹이 1946

Table 1. School establishing a brass band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Classification	School	Place	Date of establishment	Staff		Sum	The number of classes	The number of children		
				Japanese	Korean			man	woman	sum
Public	Aewol Elementary School	Aewol-myeon	1923.9	2	4	6	6	376	53	429
Public	Seongsanposeo Elementary School	Seongsan-myeon	1923.9	4	3	7	6	375	53	405
Public	Hanlimseo Elementary School	Hanlim-myeon	1923.9	3	4	7	7	408	88	496
Public	Sinchang Elementary School	Hanlim-myeon	1938.4	1	1	2	2	135	6	141
Private	Hado Elementary School	Gujwa-myeon	1923.4				4			
Public	Oedo Elementary School	Jeju-eup	1939.5				4			

년 10월 결성되어 문교부와 함께 전국적인 관악운동으로 전개를 하게 된다[11]. 제주관악은 1962년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부가 창립이 되어 제주예술제가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게 된다. 제주도의 관악은 1964년 효돈중학교와 중문중학교, 1966년 서귀중학교, 1967년 세화고등학교, 1968년 제주여자고등학교 관악대가 창설이 되면서 제주도민의 순수예술음악으로 성장하게 된다. 1970년대에는 제주제일고등학교, 제주상업고등학교, 서귀포 남주고등학교 등에서 교악대가 발대식을 하게 된다. 1980년대는 대정고등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 교악대가 창설이 되면서 제주는 순수예술음악 분야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2]. 이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urrent conditions of school music bands by schools in Jeju-do

Sortation	School name	relative height
1964	Hyodon Middle School, Jungmun Middle School	
1966	Seogui Middle School	
1967	Schwa High School	
1968	Jeju Girls High School	
1971	Jeju First High School, Jeju commercial high school, Namju High School	Three Schools
1982	Daejeong High School	
1983	Jeju Girls ' High School	
1986	Atmospheric high school	
1987	Namyeong High School	

그리고 1987년 제주시립교향악단이 창설되면서 제주도 관현악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후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고 각 지자체별로 문화관광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제주시립교향악단등의 음악 단체와 대학의 음악관련 학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주단체들의 창단과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1992년 한국관악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관악제가 제주에서 열리면서 제주에서 정기적인 관악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진행이 되었다[2]. 그리고 1994년 8월 일본 하마마쓰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태평양국제관악제가 열리면서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12].

2.3 제주국제관악제의 역사

제주국제관악제는 ‘섬, 그 바람의 울림’을 주제로 1995년부터 해마다 8월 12일 ~ 8월 20일까지 세계관악인과 제주도민, 제주를 찾고 있는 관광객이 하나 되어 즐기는 음악 축제이다.

제주 국제관악제의 태동은 1992년 제 17회 대한민국 관악제를 제주도에 유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94년 제주연합고교관악대가 제8회 아시아 태평양국제관악제 한국대표로 참석하면 관악축제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이때 지휘를 맡았던 이상철 지휘자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하였다[12]. 1992년부터 시작된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순수 관악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은 1995년 제1회 제주국제관악제를 개최하게 된다, 또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노력이기도 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리는 국제관악제였다[13]. 당초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하였던 제주국제관악제는 1997년 제2회 축제이후부터는 매년 개최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2000년 제5회 대회부터는 짝수 해마다 앙상블축제와 함께 연주자들이 경연을 펼치는 제주국제관악제 관악콩쿠르가 처음 열렸다. 그리고 2006년 제11회 대회에서는 세계 18개의 마칭밴드와 제주 4개 팀을 포함한 우리나라 6개 팀이 참가하는 ‘세계 마칭쇼밴드 챔피언십’이 제주도에서 열림으로 인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14]. 2009년에는 직접 찾아가는 우리 동네 음악회를 통해 관객의 호응도를 높이고 있다. 2017년에는 밝거리 음악회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 찾아가는 프린지 개념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관객과 연주자가 서로 소통하고 즐기는 모두의 축제를 만들고자 기획된 것이다. 제주국제관악제는 관객이 주인이 되는 음악회를 선보이면서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시민 음악 축제로 거듭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음악이란 언어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 되는 무대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음악을 통해 세계인과 소통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모두의 음악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2.3 선행연구

제주국제관악제가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성장하고, 국제적인 행사로 인정을 받기까지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제주국제관악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고, 음악축제들이 어떠한 요소들이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러 문헌들과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제주국제관악제의 성공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장병권[4]는 지역의 축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지침에 의한 방문객만족도조사, 관광객 유치실적, 주민참여, 홍보, 수용태세, 숙박 및 연계관광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축제지원의 차등화, 지역축제 콘텐츠의 혁신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

윤대균 외[5]는 축제의 전반적인 평가는 축제장을 편하게 찾을 수 있고, 행사내용이 재미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화장실이 청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축제 평가지침에 규명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축제 개최 시 지방정부의 음식가격안정화, 연령대별 마케팅계획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철구[15]는 지역의 독특한 음악제가 성공적인 여건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음악인들의 자발적 동기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그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의 문화예술 정책을 실행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성호[14]는 제주국제관악제의 성장 과정과 성과를 분석하고 그 한계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주국제관악제로 인하여 관악인들의 국제교류와 세계적인 관악 작곡가들의 작품세계를 조명하고, 국내외 작곡가에 대한 창작 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제주국제관악제를 통하여 세계 속의 제주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은정 외[16] 제주국제관악제는 행사 기간 동안 관악단 순회연주회, 지역 곳곳의 연주 프로그램 및 특설무대 통하여 지역주민들과의 화합의 장을 만들었고, 이를 통한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시켰다고 보고 있다.

김현숙[8]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는 음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음악이 주는 선율은 그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역사적인 가치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윤동진 외[17]는 음악축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맞게 역량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며, 축제자원과 관리능력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3.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3.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문헌조사를 통해 설문자료와 인터뷰조사 자료를 발췌하였다. 그리고 발췌한 연구 자료를 토대로 시민들의 만족도와 인터뷰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회의는 5명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 7월에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도출된 최종안을 일반설문문항과 인터뷰문항으로 분류하여 2017년 08월 08일 ~ 08월 16일까지 9일간 29개 프로그램 중 일반 부대행사 프로그램을 제외한 17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18]. 인터뷰 조사는 관람객 20명, 연주자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항을 기준으로 하여 반구조화 된 설문지를 토대로 현장에서 연구자가 인터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변화된 공연장의 공연만족도, 둘째는 찾아가는 공연의 만족도, 세 번째는 소통하는 공연의 만족도, 네 번째는 추계예술대학 학생들과 외국인 지휘자의 행사진행에 대한 내용, 카자르스탄 음악가들의 소감 등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이는 제주국제관악제 중 우리 동네 관악제와 2017년 처음 시작하는 박거리 음악회 연주자,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인터뷰는 그룹인터뷰, 개인인터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 참여하는 음악축제의 의견들을 종합하였다. 또한 제주국제관악제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자체평가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제주국제관악제가 지향해야 할 다각적인 방안들을 종합할 수 있었다.

3.2 분석결과

3.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특성

일반 설문을 응답한 인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총 500명으로 이 중 응답 불확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총 402부를 대상으로 분석하

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자가 60.7%로 남자 39.3%보다 높으며, 응답연령은 40대(31.1%), 20대 이하(16.2%), 30대(14.7%), 20대(14.2%), 50대(13.1%), 60대 이상(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은 사무·행정직(23.6%), 학생(21.6%), 일반 전문직(18.2%), 주부(16.9%), 서비스 자영업(9.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거주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응답한 비율은 69.7%이고, 도외 응답자는 30.3%로 나타났다. 출신국가에 대해서도 대부분(98.6%)의 응답자가 우

리나라 국민이었으며, 해외에서 온 관람객은 1.4%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3>와 같다.

3.2.2 제주국제관악제 만족도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은 75.8%(만족+매우만족)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음<Table 4>와 같다.

Table 3. Respondent characteristics

Sortation		Frequency (Personnel)	Ratio (%)	
Gender	man	158	39.3	
	woman	244	60.7	
Age	Under the age of 20	65	16.2	
	People in their 20s and 30s	57	14.2	
	People in their 30s and 40s	59	14.7	
	People in their 40s and 50s	125	31.1	
	People in their 50s and 60s	23	13.2	
	Over 60	43	1.7	
job	The farming, fishing and livestock industries	5	1.2	
	Clerical and administrative position	95	23.6	
	A general profession	73	18.2	
	Service business	38	9.5	
	Student	87	21.6	
	the lady of the house	68	16.9	
A residential city	Besides	36	9.0	
	Seoul Metropolitan City	35	8.7	
	Incheon Metropolitan City	2	0.5	
	Busan Metropolitan City	7	1.7	
	Gwangju Metropolitan City	3	0.7	
	Daejeon Metropolitan City	2	0.5	
	Daegu Metropolitan City	5	1.2	
	Ulsan Metropolitan City	3	0.7	
	Gyeonggi Province	23	5.7	
	Gangwon-do Province	1	0.2	
	Gyeongsangnam-do Province	17	4.2	
	Gyeongsangbuk-do Province	10	2.5	
	Jeollanam-do Province	3	0.7	
	Jeollabuk-do Province	5	1.2	
	Chungcheongnam-do Province	4	1.0	
	Chungcheongbuk-do Province	2	0.5	
	Jeju Metropolitan Government	280	69.7	
	A country of origin	Korea	347	98.6
		USA	1	0.3
		Africa	1	0.3
China		1	0.3	
California		1	0.3	
France		1	0.3	
Subtotal		352	100.0	
Subtotal		402	100.0	

Table 4. overall satisfaction of the Jeju wind ensemble festival

unit : people(%)

Sortation	Great discontent	Unsatisfactory	ordinary	Satisfaction	Great satisfaction	Sum	Average
Satisfaction	18 (5.3)	3 (0.9)	61 (18.0)	167 (49.3)	90 (26.5)	339 (100.0)	3.91

제주국제관악제의 프로그램 홍보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하는 수준은 프로그램 수준의 만족은 86.9%(만족+매우만족), 행사공간의 적절성의 만족은 85.2%(만족+매우만족), 관람객 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만족은 67.1%(만족+매우만족), 홍보만족도는 56.4%(만족+매우만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the satisfaction of programs and event operation

unit : people(%)

Sortation	Not at all	Not like that	ordinary	That's right	That's very true	Sum	Average
Levels of program	3 (0.8)	4 (1.0)	45 (11.3)	158 (39.8)	187 (47.1)	397 (100.0)	4.31
appropriateness of event space	4 (1.0)	11 (2.8)	44 (11.1)	146 (36.8)	192 (48.4)	397 (100.0)	4.29
promotion	14 (3.5)	37 (9.3)	122 (30.8)	119 (30.1)	104 (26.3)	396 (100.0)	3.66
convenience facilities and services for visitors	9 (2.3)	23 (5.8)	98 (24.8)	134 (33.9)	131 (33.2)	395 (100.0)	3.90

제주국제관악제 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축제 전반적인 평가는 74.4%(만족+매우만족), 공연장시설 74.1%(만족+매우만족), 자원봉사자 활동 73.9%(만족+매우만족), 진행이 원활한 정도 71.8%(만족+매우만족), 공연장과 교통68.3%(만족+매우만족), 부대행사의 수준 59.6%(만족+매우만족), 축제홍보·마케팅(만족+매우만족)의 순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evaluation of detailed elements in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unit : people(%)

Sortation	Great discontent	Unsatisfactory	ordinary	Generally satisfied	Great satisfaction	Sum	Average
Venue and transportation	17 (4.3)	17 (4.3)	93 (23.3)	167 (41.8)	106 (26.5)	400 (100.0)	3.82
venue facilities	15 (3.8)	15 (3.8)	74 (18.5)	171 (42.8)	125 (31.3)	400 (100.0)	3.94
the extent of smooth progress	15 (3.8)	18 (4.5)	79 (19.9)	189 (47.6)	96 (24.2)	397 (100.0)	3.84
volunteer activities	12 (3.0)	15 (3.8)	77 (19.3)	171 (43.0)	123 (30.9)	398 (100.0)	3.95
festival promotion / marketing	18 (4.5)	34 (8.5)	115 (28.8)	142 (35.6)	90 (22.6)	399 (100.0)	3.63
level of the event	16 (4.0)	20 (5.1)	124 (31.3)	148 (37.4)	88 (22.2)	396 (100.0)	3.69
overall evaluation	15 (3.8)	14 (3.5)	73 (18.3)	185 (46.5)	111 (27.9)	398 (100.0)	3.91

제주국제관악제를 개최하는데 있어 제주의 여건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 장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점을 기준으로 자연경관(97.9%), 다양한 관광자원(93.8%), 숙박시설 등 관련시설(80.5%), 주민들의 친절성(79.5%), 문화예술 시설(77.7%), 기후적 여건(73.4%), 교통의 편리성(54.9%)의 순으로 나타났고, 단점 중에서는 교통의 편리성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hosting Jeju International Wind Music Festival
unit : people(%)

Sortation	advantage	Weakness
Natural scenery	237(97.9)	5(2.1)
climatic conditions	146(73.4)	53(26.6)
culture and art facilities	164(77.7)	47(22.3)
related facilities such as accommodation	161(80.5)	39(19.5)
the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118(54.9)	97(45.1)
various tourism resources	195(93.8)	13(6.3)
the kindness of residents	155(79.5)	40(20.5)

제주국제관악제를 개최함으로써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제주 문화예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 83.1%(매우 있음+약간 있음), 제주도 홍보 및 이미지제고 77.7%(매우 있음+약간 있음), 제주와 타지역간 교류를 통한 이해증진 77.6% (매우 있음+약간 있음), 제주지역경제 활성화 62.9%(매우 있음+약간 있음), 순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expected effects of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unit : people(%)

Sortation	None at all	Few	ordinary	A little bit	Very	Sum	Average
Promotion and image enhancement of Jeju Island	8 (2.0)	10 (2.5)	71 (17.8)	132 (33.2)	177 (44.5)	398 (100.0)	4.16
Jeju Island revitalization of Jeju economy	10 (2.5)	20 (5.0)	118 (29.6)	130 (32.7)	120 (30.2)	398 (100.0)	3.83
posi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Jeju culture and arts	8 (2.0)	10 (2.5)	50 (12.5)	111 (27.7)	222 (55.4)	401 (100.0)	4.32
increase in understanding through exchange between Jeju and other regions	10 (2.5)	7 (1.8)	73 (18.3)	117 (29.3)	193 (48.3)	400 (100.0)	4.19

제주국제관악제를 다시 방문할 의향은 84.8%(그렇다+매우 그렇다)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Table 9>와 같다.

Table 9. Intention to return to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unit : people(%)

Sortation	Not at all	Not like that	ordinary	That's right	That's very true	Sum	Average
Revisit	6 (1.5)	6 (1.5)	49 (12.2)	182 (45.4)	158 (39.4)	401 (100.0)	4.20

제주국제관악제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은 84.8%(그렇다+매우 그렇다)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Intention to recommend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unit : people(%)

Sortation	Not at all	Not like that	ordinary	That's right	That's very true	Sum	Average
Intention to recommend	4 (1.0)	9 (2.2)	48 (11.9)	173 (43.0)	168 (41.8)	402 (100.0)	4.22

3.2.3 관람객 인터뷰 조사

관람객 및 연주자 인터뷰조사에서는 총 관람객 20명, 연주자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루트윅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은 언어는 힘이며, 권력이라고 표현 한다. 제주는 영어가 아니라 음악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의 영향력 중 하나는 국제관악제를 통한 브라스의 공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관람객과 음악인이 언어가 아닌 소리에 울림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관객은 객석에서 음악가는 무대에서 서로에게 소통하고 있었다. 소통의 기준은 없다. 관객과 음악인이 하나 되어 축제를 즐기는 것 뿐이다. 관람객을 각 지역별로 20명과 연주자 10명을 선정하여 조사한 인터뷰 조사에서는 세부적인 만족도 및 공연의 소감 등을 알아보았다. 이는 첫째 다변화된 공연

장의 공연만족도, 둘째는 찾아가는 공연의 만족도, 세 번째는 소통하는 공연의 만족도, 네 번째는 대학 학생들과 외국인 지회자의 행사진행에 대한 내용, 카자르스탄 음악가들의 소감 등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그룹 인터뷰, 참가자 인터뷰, 개인인터뷰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반 구조화 된 설문양식을 사용하였다. 설문한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제주국제관악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었다. 첫째는 다변화된 공연음악이다. 김00(49세)는 괘지과물해변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관악의 매력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다. 황00(40세)는 바다를 보며 관악이 선율이 흐를 때 황홀경에 빠져드는 느낌이 들었고, 연주자들이 공연을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너무나 보기 좋았다고 한다. 음악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과 하나 되어 소통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다고 한다. 박00(35세)은 제주에 관광 와서 음악축제를 처음 접했다고 했다. 가족이 다함께 즐겁게 즐겼다고 했다. 아이들은 관악연주에 맞추어 춤을 추기도 했다고 했다. 아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음악이란 서로를 연결해주는 따뜻한 울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괘지과물해변에서의 공연은 열정적인 관악연주가 바다라는 지역장소와 매칭 되어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 장소를 불문하는 찾아가는 공연이다. 이를 살펴보면 성00(45세)는 올레길 18코스를 색소폰 연주시간에 맞추어 걸었다고 했다. 산지천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촌에 숙소를 잡고 남생이 연못에서 ‘에코색소폰앙상블’의 매력에 빠져 제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자연과 하나 된 음악, 누구나 참여하여 소통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축제 난 그 축제 속으로 동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룹 인터뷰에서는 찾아가는 음악회의 장점이 이렇게 자연과 하나 되어 음악에 매료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체적인 관람객이 평가는 관악이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관객과 진정으로 소통하고자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악이 언어화 되어 관객과 소통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 나의 불문 음악이란 선율로 소통하다. 금능꿈차롱 도서관의 맑거리 공연 이 공연은 올해 처음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금능꿈차롱 도서관에 있는 어린이 들이

‘four Talk 앙상블’ 팀의 색소폰 연주를 듣고 있다. 지휘자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곡을 듣고 싶어요?” 라 물어보았으나 대답은 없다. 쑥스러워한다. 대기하고 있던 연주자에게 조용히 말한다. “아빠 힘내세요 을 듣고 싶어요.” 라고 곡을 제안한다. 드디어 연주 팀과 어린이들 간의 음악을 통한 소통이 시작되던 순간이다. 연주자는 음악을 연주하고 엄마와 아빠, 어린이들까지 박수치며 소통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의 평가는 제주국제관악제는 소통의 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나이를 불문한 어린이와 소통하는 음악공연이 정말 좋았다는 의견이다. 어린이들의 생각과 어른들이 생각이 음악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함께 하는 축제를 연출했다는 점에서 관람객들은 제주국제관악제를 높이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Fig 1>과 같다 [19][20].



Fig. 1. Performance of the outside concert in the Geumneung Ggumcharong library

넷째 눈빛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추계예술대와 수원 대학의 외국인과의 협연을 통한 소통은 음악적인 언어가 국적을 불문하고 서로가 공감되는 음악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아트센터 공연을 통해 한국어를 조금할 수 있는 스페인 지휘자, 일본인 호른 주자, 수원대학교 학생들의 연주다. 이들은 제주에서 처음 만나서 리허설을 하고 무대에 섰다. 훌륭한 연주와 매너를 통해서 학생들은 소통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음악용어가 있고, 악보가 있고, 지휘자가의 요구 그 외 리듬파트의 지원 등의 각각의 언어가 되어 연주자들을 하나로 만들고 있었다. 연주에 참가한 참가자 역시 음악언어를 통해 소통한 놀라운 경험이 향후 음악을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제주국제관악제에 참가하여 외국인 지휘자와 공연을 하는 것만으로도 음악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사실들이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추계예술대학 학생들의 표현이다. 군대생활 할 때 국내외의 관악제에 참석했고, 이제는 복학해서 다시 제주국제관악제에 참석했던 학생의 표현이다. “제주국제관악제는 다양한 외국의 지휘자, 심사자, 경연자, 합주단, 독주자 등이 모여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분들의 역할을 보고 음악과 귀로 소통하면서 음악적으로 많은 기술과 소양을 습득한다.”고 한다. 많은 소통의 모습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Fig 2>과 같다[19][20].



Fig. 2. Orchestra with students

다섯째 문화예술은 때론 외교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카자흐스탄 목관 앙상블과의 교류는 음악을 통한 외교의 장이며, 지역주민과 음악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소통이 장이기도 하였다. 연주 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제주의 아름다움, 친절함, 배려심 등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이번 교류가 끝이 아니고 음악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한림 돌 빛나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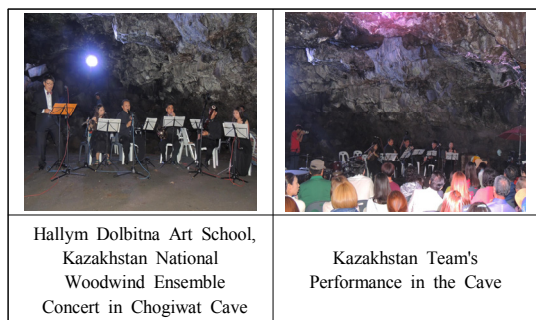


Fig. 3. Cave concert by Kazakhstan Woodwind Quintet

학교 초기와 동굴에서 공연을 하였다. 관람객은 동굴에서 음악을 들으며 즐거워했다. 음악은 새로운 소통의 언어를 통해 국제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Fig 3>과 같다.[19][20]

3.2.4 제주국제관악제 자체평가회 결과

제주국제관악제 자체평가는 2017년 9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개최가 되었다. 평가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관악콩쿠르 임대홍 집행위원은 국제 콩쿠르의 진행의 문제점은 첫째 국제콩쿠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직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는 제주국제관악제 홈페이지를 활성화 하여 참가비등 모든 결제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윈스톱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셋째는 숙소와 경연장의 접근성을 강화 할 수 있는 교통편의 지원일 필요하다고 하였다. 넷째는 각 경연장 및 공연장에서고생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처우 문제이다. 이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국제 관악제가 성장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배치를 통하여 자원봉사자의 피로도를 줄여줄 필요성 있다고 역설하였다.

서귀포 지역 공연장을 총괄하고 있는 강창임 집행위원은 매년 관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에 대한 기반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각 공연장에 맞는 팀장, 스텝, 자원봉사자들을 규모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는 공연장 무대 규모에 맞는 연주 팀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공연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 동네 관악제 김현중 집행위원은 2009년부터 도입된 우리 동네 관악제 프로그램의 호응도와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면서도 몇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었다. 첫째는 찾아가는 공연의 특성상 차량에 대한 지원이다. 고등학생 밴드와 공연규모를 판단하여 공연에 맞는 차량지원과 운전인력을 지원하여 연주자들의 편리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둘째는 무대 기반 확보다. 야외에서 하는 공연의 특성상 관객이 많아지면서 의자와 연주에 필요한 보면대 등의 체계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 김경주 사무국장의 평가이다. 2017년 제주국제관악제는 도내 관련기관의 후원으로 예산의 증액되었다. 증액된 예산으로 운영환경 개선 및 인력 확보 등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일

시적인 것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첫째는 사무국 조직체계 개선이다. 이는 사무국인원이 총괄운영팀장 및 총무팀장 2명으로 운영되어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 업무와 홍보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둘째는 행사의 조기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에서 참가하고자 하는 단체들을 섭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는 안정된 예산 확보이다. 이는 전문화된 운영요원을 확보하고, 홍보를 위한 예산들이 증액되어 사무국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

4. 정책제언 및 결론

제주국제관악제는 지속가능한 세계인이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음악언어의 소통을 택하였다. 2009년부터 시작된 우리 동네 관악제와 2017년 시작된 바귀리 음악회를 통해 음악인, 관람객, 지역주민이 하나 되는 소통의 음악제를 개최하고 있다. 소통의 음악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음악언어의 소통을 위해 도서관, 미술관 등의 복합문화공간을 찾아가는 프린지 개념의 작은 공연, 해변, 동굴, 포구를 가리지 않고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인터뷰 조사에서도 기존의 음악회 차별화 된 모습이 관람객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주국제관악제의 국제적인 위상은 세계적인 음악축제와 비견될 만큼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성장의 배경에는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주민들의 호응,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있어 가능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제주국제관악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만족도와 자체평가회를 토대로 보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첫 번째는 사무국 조직체계 개선을 통한 전담인력 확보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예산확보가 중요하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세계적인 지휘자 및 연주자들을 초청해야하는 행사이다. 현재 외국단체 섭외는 길면 2년 이상, 짧게는 1년의 시간으로 단체를 섭외하게 된다. 그 만큼 전담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사무국은 2명이 상주하여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으나, 2명에서 4명을 증원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제주국제관

악제를 운영할 수 있는 상시 전담조직 구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체계적인 기획 및 홍보를 통한 제주국제관악제의 완성도를 높여줄 필요성이 있다. 전담인원 세부적인 충원을 살펴보면 국제참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 홍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 제주국제관악제를 기획할 수 있는 직원, 장소섭외를 할 수 있는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9장 제39조 보조금지원 4항의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개최사업 지원 내용을 활용하여 전담조직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줄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교통의 편리성 증대이다. 이는 각 공연장을 연결하는 교통의 연결성을 확보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이 편리한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자체 평가회에서도 언급이 된 내용이다. 숙소와 연주할 곳을 연결하는 교통편이 부족하여 연주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애플리케이션 및 제주국제관악제 홈페이지 브로셔등을 활용하여 공연장의 대중교통 노선을 체계적으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연주자 및 행사관계자를 도와줄 수 있는 전용차량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셋 번째는 제주국제관악제 홈페이지 활성화 이다. 이는 홈페이지에 결제시스템을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관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현재는 결제시스템이 없어 별도로 사무국에서 결제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것을 개선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이는 참가비, 숙소 등의 비용을 홈페이지에서 모든 결제가 완료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호텔 및 렌터카, 여행사 업체들과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결제시스템을 만들어 낼 필요성이 있다. 또한 홈페이지 개선을 통하여 제주국제관악제를 도와줄 상시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는 페이지를 추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는 전담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예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각 지역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기반 투자 확대이다. 공연장 부족으로 인한 시설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인하여 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공공건물

을 활용한 공연시설 완비와 설비 증설이 되어야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각 지역별로 전문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공연장은 지역주민의 섭외와 관객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축제 시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구조를 만들어 낼 필요성이 있다. 이는 각 마을에 있는 문화센터나 체육관의 설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연장이 될 수 있다. 또한 찾아가는 음악회의 특성을 활용한 연주에 필요한 보편대, 의자 등의 필수 용품들을 미리 확보하여 배치 할 필요성이 있다. 보편대는 규모와 인원에게 맞게 구입하고, 의자와 탁자 등은 제주지역 43개 읍면동사무소와 연계하여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번째는 각 공연장 및 경연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텝 및 자원봉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다른 축제 행사에 비해 행사의 수가 많고 세부적으로 숙지할 사항들이 많은 것이 제주국제관악제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운영하고 각 행사업무 담당직원 및 자원봉사자 미팅, 자원봉사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해야 할 것이다. 또한 3월부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최소 매월 1회 이상은 회의를 개최하여 진척적인 교육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세부적인 활동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모바일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상시 업로드 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자원봉사자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올해 밖거리 음악회를 통해 다양한 관람이 기회를 제공했다. 연주자들도 관람객이 눈높이에 맞추어 연주를 진행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밖거리 음악회와 우리 동네 관악제는 음악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제주국제관악제가 성장하고 세계인의 관악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방안들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세계인에 축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제주국제관악제 만족도조사와 자체평가회를 토대로 했고, 관객과 연주자들의 면접조사를 부분별로 했다는 점이 일반화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제주국제관악제 이외의 지역축제를 평가해볼 필요성이 있고, 축제의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지역축제의 다변화된 분석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 [1] Fridgen, Joseph D, Dimensions of Tourism. East Lansing, Michigan: Educational Institute of thr American Hotel and Motel Association, 1990.
- [2] Yoo, Hyeok Joon, 2014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 18th Asia-Pacific Wind Ensemble Festival - Island of Wind, Looking for Its Roots - Auditorium, pp. 99-101, Sep. 2014.
- [3] Min, Kyung Hoon, Evaluation and Tasks of the 21st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in 2016. Forum for the development of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2016.
- [4] Dae Kyun Yoon · Byung ju Jang · Seok ho Song,,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Festival Evaluation and Direc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Visitors of Local Festival -A Case of the Yeongwol Donggang Festival, vol. 6, no. 2,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pp. 63-81, 2010.
- [5] Pyong Kwon Chang, The Evaluation System of JB Festival, International Tourism Research, vol. 3, no. 2, pp. 5-23, 2006.
- [6] Chang Hyeon Joh · Jin Whi Kim · Jin Hwi Baek · Byeong Min Ahn · Yun Hyung Rha, An Analysis of Association between Local Festival Evaluation and Visitor Satisfaction: A Case Study of the Local Festival Events in the period of 2012 to 2014, vol. 18 No4,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pp. 492-504, 2015.
- [7] Organizing Committee of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A Study on effects of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on the cultural, artistic and social environments of Jeju. Jeju-Si and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2004.
- [8] Jeju Island Diary, Jeju Island Diary (Volume I), Jeju Island Diary Compilation Committee, 1982.
- [9] Jwa, Woon Kuk, Yesterday and Today of Jeju Music, Jeju Culture and Art White Paper pp. 108-122, 1988.
- [10] Jang, Gi Beom, Narrative and evaluation of the Cherles Everett Gildert's accomplishment of the Jeju brass band, Music education engineering, vol. 29, pp. 01-19, 2016.
- [11] Kim, Ji Hye, Major in orchestral music, Department of Music, Kyungw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sis for Master's Degree, 2007.
- [12] Yoo, Hyeok Joon, The 9th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Aug. vol. 108, pp. 46-47, 2004.
- [13] An, Jong Bae, Expectation of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and arts education, Kyungpook Broadcasting Co, Ltd, March, 2013.
- [14] Kim, Sung Ho, Study on alternative policy for activation of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Forum for the development of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pp. 9-51, Aug. 2009.
- [15] Lee, Chul Gu, Music Festival - Focused on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 Forum for the development of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pp. 15-24, Aug. 2014.
- [16] Lee, Eun Jeong, Hwang, Kyung Soo, and Ko, Tae Ho, Analysis on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on Jeju Island, Forum for the Development of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pp. 55-68, Aug. 2009.
- [17] Yoon, Dong Jin, and Kim, Jung Hee, Success factors and tasks of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Tamra Culture, vol. 51, pp. 275-306, 2016.
- [18] A survey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in 2017 and the results of the economic ripple effect, Organizing Committee of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2017.
- [19] Hwang, Kyoung Soo, Reflection and orientation of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in 2017, Self-evaluation committee of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pp. 46-68, Sep. 7, 2017.
- [20] Hwang, Kyung Soo, There are no barriers such as language or nationality in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The sound of Jeju, Aug. 16, 2017.

양 정 철(Jeong-Cheol Yang)

[정회원]



- 2015년 8월 : 제주대학교 행정학 박사
- 2015년 11월 ~ 현재 : 세계환경과 심연구소 특별연구원
- 2015년 9월 ~ 현재 : 세계심학회 연구위원
- 2017년 8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관심분야>

요트&크루즈, 지역개발, 해양관광, 문화행정

이 관 홍(Gwan-Hong Lee)

[준회원]



- 2017년 8월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지방자치 석사)
- 2018년 8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관심분야>

문화행정, 마을 만들기

황 경 수(Kyung-Soo Hwang)

[종신회원]



- 1993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도시 및 지역계획 석사)
- 1997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교통공학 박사)
- 2004년 8월 ~ 현재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2016년 11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부소장

<관심분야>

교통행정, 도시행정, 문화행정, 협상론